

# ‘민중’에서 ‘생명’으로

## -한국신학 발전에서의 김지하의 영향\*

장 동 민

(천안대학교 교수 / 조직신학)

- I. 서론
- II. 김지하와 민중신학
  1. “두 이야기의 합류”
  2. 민중의 의미
  3. ‘한’(恨)과 ‘단’(斷)의 변증법
- III. 김지하의 생명사상으로의 전회(轉回)와 생명신학에의 영향
  1. ‘민중’에서 ‘생명’으로
  2. 김지하 생명사상에서의 인간과 자연
- IV. 결론: 김지하 생명운동의 문제점 혹은 기독교 생명신학의 착안점
  1. ‘민중’과 ‘생명’
  2. 인간과 자연

### • ABSTRACT •

Kim Jiha is one who brought one of the most serious controversies into the Korean modern history of social and religious thought. His ballade, "Chang Il Tam Story" gave much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Minjung theology in 1970's. His proposition, "Minjung is the agent of historical reformation," helped theologians to set up the Minjung concept. His theory of "dialectic of Han(suffering) and Tan(extinction)" clarified the point of Minjung theology, "self-transcendence of Minjung."

After a long period of imprisonment, Kim Jiha converted himself from Minjung-centered thought to Life-centered thought. He tried to comprehend Minjung with Life. According to him, Life is soaked into all lives, from animals to plants, from inorganic matters to machinery. Human beings are the end of naturalistic evolution and also should be perfectly harmonized with nature.

I believe there are some serious defects in Kim Jiha's Life thought. ① When he says that Life is in everything in the world without distinction, lives could be endangered, because the circle of life is destroyed. ②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who practises ethic, language, science with his self-consciousness, is obscure. I suggest that the view of life and man in traditional Christianity can provide wisdom for solving such problems.

**Key Words:** Kim Jiha, Life thought, Minjung theology

\* 본 논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2004년 BK(Brain Korea)21 연구사업 “기독교문화”(A104)를 위해 쓰여진 논문입니다.

## 1. 서론

한국의 사상가 가운데 김지하만큼이나 사상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논쟁을 주도한 사람이 또 있을까? 초기의 김지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중시인이었다. 70년대 개발독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투쟁적인 시, “오적”(五賊)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민주화운동의 배후에서 사상적 동력을 제공하였다.<sup>2)</sup> 카톨릭 사제인 지학순 등과 함께 원주에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오랜 수감 생활(1974년부터 1980년까지)을 하였다. 그의 사상이 심각한 전회(轉回)를 이룬 것은 바로 이 수감 생활을 통하여서였다. 김지하는 1974-75년 10개월간의 수감생활 통하여 본격적으로 ‘신과 혁명의 일치’ 문제에 대하여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적 전통과 한국민중의 전통을 융화시키려는 시도를 감행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두 이야기의 합류”가 한국 민중신학의 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75년 출감 후 곧바로 민청학련사건의 진상을 밝힌 「고행-1974」를 발표함으로써 27일 만에 재수감되었다. 그가 확실하게 민주화 투쟁을 접고 그의 생명사상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 감옥에서의 6년 기간이었다. 출감 후 그는 이전의 민중 중심의 투쟁을 접고, 생명운동을 시작한다. 「조선일보」에 투신과 분신 등의 과격한 학생운동이 생명사상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들을 준열히 꾸짖다가, 운동가들로부터 변절자로 낙인찍힌 것도 이 때였다. 70년대 김지하의 사상을 ‘칼’로, 80년대 사상을 ‘밥’으로 분석하기도 한다.<sup>3)</sup> 김지하는 자신의 감옥에서 얻은 힌트를 발전시켜서 자신만의 독특한 생명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10년 후의 삶을 사는” 김지하의 사상은 10년이 지난 1990년대 이후 대중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사회 운동 혹은 종교 운동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주제로서 자리매김되었다.<sup>4)</sup> 이 대중적인 호응의 한 갈래로서 기독교계에서도 ‘생명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민중신학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sup>5)</sup> 생명신학으로 대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김지하의 ‘민중’사상이 민중신학의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중신학자 서남동은, “‘한’(恨)을 기독교 신학의 주제로 훌륭하게 발전시킨 처음 공로는 김지하에게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sup>6)</sup>이라고 하여, 민중신학의 수립에 김지하의 사상이 중

2)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서울: 학고재, 2003), p. 204 이하를 참고하십시오.

3) 성민엽, “김지하의 문학과 사상” 「작가세계」, 제2호, p.92-93.

4) 하나의 비근한 예로서, 2004년 11월 12일 김지하가 주도하는 ‘생명과 평화의 길’과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주최한 ‘세계생명문화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의 학계와 문화계를 대표하는 많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김지하의 생명사상의 영향을 받았다.(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 2004년 11월 15일)

5) 민중신학의 아젠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1970-80년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외연을 가지던 ‘민중’이,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계층, 환경파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 장애인,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살길을 잃은 농민,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대받는 여성과 어린이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다. ‘민중’은 다양화되고, 국제화되고,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용복, “21세기와 민중신학”, 「신학사상」 109집, (2000년 여름), pp. 61-63.) 새로운 환경에서 민중신학이 해야 할 일은 새롭게 생겨난 ‘민중’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신학적 분석과 대답을 주는 일일 것이다. (최영실, “안병무의 민중신학적 성서해석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신학사상」 76집, (1997년 봄), pp. 99 이하; 문동환, “21세기와 민중신학”, 「신학사상」 109집, (2000년 여름), pp. 48-51.)

6)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p. 98.

요하였음을 인정한다. 한국민중 혁명의 전통과 기독교 전통을 융합하려는 김지하의 시도가 독자적인 한국 신학 수립을 갈망하던 일군의 신학자에게 전달되어 ‘민중신학’을 탄생시키는 한 계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 II. 김지하와 민중신학

김지하는 1974-75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단순한 민주화투쟁이 아닌, 좀더 깊은 의미의 사회적 투쟁과 사상적 혁명의 통일을 구상하였다. 그가 다시 투옥된 후 1975년 5월에 쓴 “양심선언”이라는 글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지하에 의하면 그는 이미 카톨릭의 교리와 교황의 칙서들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남미의 해방신학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신과 혁명의 통일”을 꿈꾸어 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1년 이래 확대되어 온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신교의 민중운동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한국의 민중운동 전통과 기독교 전통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그가 감옥에서 구상한 담시(譚詩), “소리의 내력”이나 “장일담”, 희곡인 “말뚝” 등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서남동은 김지하의 메모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의 작품으로부터 민중신학의 중요한 개념이 나왔음을 밝힌다. 김지하의 생각이 민중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 1. “두 이야기의 합류”

민중신학이 김지하로부터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갈래의 연원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개발독재라는 상황, 전태일의 분신 사건,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학적 방향, 남미의 해방신학을 비롯한 제3세계 신학의 발흥,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을 기반으로 한 산업선교, 좀더 깊은 뿌리로서는 한국의 민중운동과 한국의 민중문화운동 등 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이 모든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중신학자 서남동이 명명한 “두 이야기의 합류”일 것이다. 즉 기독교의 민중전통과 한국의 민중전통이 합류하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재현된다는 것이 민중신학의 독특한 발상이다. 출애굽, 십자가, 요아킴 플로리스, 토마스 뮌저, 제2 바티칸 공의회 등의 기독교적 전거(典據)와, 동학, 3.1운동, 4.19혁명, 판소리, 탈춤, 전태일 등 한국 민중운동의 전거(典據)가 현재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sup>8)</sup>

서남동은 이러한 “두 이야기의 합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김지하의 문학, 특히 옥중에서 메모한 담시(譚詩) “장일담”을 들고 있다.

그김지하는 그의 신학사상을 한 담시(譚詩)의 구상 메모 “장일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담시 “장일담” 구상메모로써 그는 가톨릭 신앙에로의 두 번째의 보다 깊은 회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로써 그는 이미 세계에서 기대의 각광을 받고 있는 민중의 신학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인 김지하나 그의 신학은 많은 신학자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그에 관한 연구논문이 외국의 신학잡지에 발

7) 민중신학의 뿌리에 대하여, 줄고, “민중신학에서 생명신학으로: ‘민중의 사회전기’ 개념을 통해 본 민중신학의 변화 가능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0호 (2004년 3월)를 참고하십시오.

8) 서남동, 위의 책, pp. 45-82.

포될 정도까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에서 두 전통이 합류된 것을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데서 민중신학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다.9)

서남동은 김지하가 카톨릭 신앙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전통과 한국 민중전통을 융합하려 하였다고 분석한다. 김지하는 일찍부터 카톨릭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아씨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영세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한 카톨릭 원주 교구를 중심으로 “인간의 내면적 혼의 평화와 외면의 사회적 변혁의 통합”을 목적으로 이른바 ‘원주운동’을 시작하였다.10) 당시 "장일담"을 구상하면서도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제2 바티칸 이후 교황의 칙서들과 남미 카톨릭을 중심으로 일어난 해방신학이었다고 한다.11) (그러나 김지하의 생각 속에서는, 1974년 감옥에서 민중신학적 구상을 할 때 이미 카톨릭 외에도 불교, 동학 등의 사상이 “혹은 결합하고 혹은 용해되고 혹은 서로 모순하고 부딪치면서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12) 김지하의 “신과 혁명의 통일”은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방식으로 민중신학자들의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 2. 민중의 의미

김지하의 사상이 민중신학에 영향을 끼친 것은 기독교전통과 한국 민중운동 전통의 결합이라는 형식만이 아니었다. 김지하의 ‘민중’ 정의(定義)도 민중신학자들의 정의(定義)와 일치한다.

김지하를 비롯한 민중을 사고의 주제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모두 ‘민중’을 정의하기를 극도로 꺼린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등으로 정의할 때, 역사적 변천에 따라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민중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에 대한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정의가 있다. 초기 김지하의 민중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극적 정의로서, “수난, 소외된 정도, 소외와 고통, 뿌리 뽑힌 정도에 따라 민중을 규정”한다. 즉 민중이란 한 사회에서 가장 극심하게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둘째, 적극적 정의로서, 민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노동을 직접 담당하고, 문화를 건설하면서, 역사적 움직임을 실천적으로 옮겨가며, 또한 역사의 근원적 움직임에 장애되는 요인에 대하여 저항하는 집단이다. 한 마디로 “역사의 주체”라는 말이다.13)

민중신학자들은 김지하의 ‘민중’의 정의 가운데 첫 번째의 것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면서, 두 번째의 정의를 발전시킨다.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한 것이다.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예수는 민중이고, 민중은 예수”라고 한다.14) 예수가 민중이

9)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p.79, 224.

10)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p. 186-200.

11) 김지하, “양심선언”, 『남녘땅 뱃노래』 (서울: 두레, 1985). p. 54.

12) 위의 글, p 56.

13) 김지하, 『밥: 김지하 이야기 모음』 (왜관: 분도출판사, 1984), p. 132-3. 김지하가 『밥』을 집필한 것은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후기이다. 위에서 인용한 대목은 초기의 민중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김지하는 이 책에서 자신의 초기 민중개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민중개념을 설정하려 한다. 인용된 부분은 그가 초기에 생각하던 ‘민중’의 정의이다.

14) 김지하 자신도 ‘민중예수’의 모티브를 많이 발전시켰다. 김지하가 1973년 원주 카톨릭회관에서 초연한 희곡 ‘금관의 예수’와 후일 김민기가 곡을 붙이고 양희은이 노래하여 금지곡이 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대표적이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별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

었다는 말은, 예수가 당시 사회에서 억압받은 계층의 대표라는 말로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민중이 예수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예수가 민중이라는 “집단의 표상”이라는 뜻이다. 예수가 민중이라는 집단의 표상이고 민중의 상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안병무는 예수가 민중을 “위한” 지도자, 해방자, 교육자라는 개념을 강하게 부정한다. 예수는 민중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대신 드린 것이 아니다. 예수는 민중이라는 대상을 의식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해방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주체가 아니다. 또한 예수가 민중의 대표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가 민중의 역할 모델(role model)로서 민중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는 뜻도 아니다. “민중이 예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예수의 이야기와 민중의 자기체험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이다. 즉 예수 사건을 전승시킨 당대의 민중은 예수의 처형 속에서 자신들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 준 “전승모체”가 되었다 한다. 예수의 이야기는 민중을 의식화시켰고,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의식한 민중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승시켰다는 것이다.<sup>15)</sup>

민중신학자 김용복은 민중을 정의하면서 “민중의 사회전기(傳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다.<sup>16)</sup> 민중은 자신들의 고난과 희망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민중의 사회전기에 의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사회 전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가복음이고, 한국적 전통에서는 민담, 탈춤, 판소리 등이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이야기’(narrative) 속에서 자기를 의식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민중 개념은 그러므로 인격적인 것이요, 심지어 종교적인 것이다. 김지하의 민중 개념이 민중신학자들에 의하여 세련되고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한’(恨)과 ‘단’(斷)의 변증법

그렇다면 민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김지하는 민중의 삶과 고난을 ‘한’(恨)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다음은 김지하가 말하는 ‘한’의 정의이다.

불가사의한 이 삶을 지배하는 저 물신(物神)의 폭력이 시인(김수영을 가리킴, 역주)의 의식 위에 가한 고문과 낙인은 그 가슴에 깊고, 짙고, 끈덕진 비애를 응결시킨다. 폭력은 그 폭력의 피해자 속에서 비애로 전화되는 것이다.... 무한한 비애 경험의 집합, 이 축적을 우리는 한(恨)이라고 부른다.<sup>17)</sup>

한(恨)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 김지하에서, 또한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민중신학자들에서 독특한 점은 그 한을 어떻게 풀

---

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메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의 아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아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 15) 안병무, “예수 사건의 전승모체”, 주재용, 서광선 편, 『역사와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p. 111-138.
- 16) 김용복, “민중의 사회전기와 신학,” NCC신학연구위원회 편, 『한국민중의 사회전기: 민족의 현실과 기독교운동』(서울: 한길사, 1987), pp.369-391.
- 17) 김지하, “풍자나 자살이나”, 이 글은 1970년 시인 김수영을 기념하며 쓴 글인데, 김지하의 『이것 그리고 저것』(서울: 동광출판사, 1991), p. 198에 재수록되어 있다.

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김지하는 그 ‘한’을 ‘단’(斷)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한다. 한의 고리를 어떻게 끊는가? 한을 억압하고 참으라고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는 비겁한 것이고 민중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을 풀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도 아니다. 폭력을 긍정하되 ‘사랑의 폭력’이어야 하며, 비폭력이지만 ‘용기 있는 비폭력’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지지하는 혁명은 이와 같은 철저한 비타협, 불복종의 비폭력주의와 고뇌스런 사랑의 폭력을 결합 통일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비폭력이 비굴로 흐르지 않고 폭력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인간의 부단한 내적·영신적 쇄신이 필요하고 민중의 보편적인 자기 각성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sup>18)</sup>

‘사랑의 폭력’과 ‘용기 있는 비폭력’을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종교적 각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종교는 “민중들로 하여금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의 존엄성에 눈뜨게 하여 그들의 좌절과 자학을 종말론적인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다.”<sup>19)</sup> “삶과 죽음을 꿰뚫는 인간의 종교적인 결단, 인간의 내적·영신적 쇄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김지하가 말하는 “신과 혁명의 통일”이다. 종교적 결단이 없는 혁명은 폭력일 뿐이고, 혁명이 없는 종교는 감상적인 자선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sup>20)</sup>

김지하는 이러한 통일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장일담”을 감옥 속에서 구상하였다. 장일담은 천민 출신으로서 폭력적 해방 운동의 선두에 서다가 감옥에 갇힌다. 탈옥 후 도망 다니면서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단’(斷)이다. 배신자의 밀고로 잡혀 목이 잘렸으나, 그 잘린 목이 배신자의 몸통에 붙는다. 배신자에 대한 복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악인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를 구원한 것이다.

이 장일담의 메모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민중신학자 서남동이였다. 그는 장일담의 이야기를 성경과 결합시키기 위한 시도를 거듭한다. 그리고 ‘단’을 이렇게 정의한다.

단, 이기적이고 안락한 유희를 물리치는 자기부정, 원한의 무한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혁명, 하늘에 이르는 영원한 나그네 길을 가는 단의 철학.

한편에서는 살육과 무한보복과 파괴와 끝없는 증오를 불태운 무서운 한의 축적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의 악순환적인 폭발(즉자적 폭발)을 억제, 보다 높은 정신적 힘으로 승화하는 단의 반복이 필요하다.<sup>21)</sup>

---

18) 김지하, “양심선언”, p. 51.

19) 김지하, 위의 책, pp. 52-3.

20) 김지하의 “신과 혁명의 통일”은 편안한 상황에서 사색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투쟁과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하여 생각이 성숙해진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이겼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들, 이 집단의 영생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이 집단의 사슬에 묶인 가슴 속에서 비로소 타오르기 시작하는 참된 삶의 저 휘황한 불꽃을 감격에 차서 바라보고 있었다.”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p. 365.)

21)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p. 79-82, 103.

서남동의 ‘한’과 ‘단’의 변증법 뿐 아니라, 안병무의 ‘민중의 자기초월’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병무는 민중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자기가 처한 참담한 현실을 알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 현실을 이겨 나가려고 하는 ‘민중의 자기초월’을 든다.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민중운동 혹은 민중 종교운동은 모두 민중이 자기를 초월하려 한 노력이었다고 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70년대 전태일이었다. 그는 자신도 가난한 처지였지만, 동료 여직공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인식하여 자기를 희생하였으며, 또한 넘을 수 없는 법의 한계를 근로기준법과 함께 분사함으로써 넘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김지하의 민중사상은 민중신학의 방법론 뿐 아니라 ‘민중’ 개념과 민중의 한을 푸는 ‘단’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민중신학자들이 김지하로부터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민중신학의 형성에 김지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김지하의 생명사상으로의 전회(轉回)와 생명신학에의 영향

#### 1. ‘민중’에서 ‘생명’으로

1975년 재수감된 이후 7년간의 감옥살이를 하면서, 김지하의 사상이 변화를 겪었다. 그의 후기 사상을 특징짓는 생명사상이 감옥살이를 통하여 태동하게 된 것이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 ‘민중’에서 ‘생명’으로 전회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방에 갇혀 생태학, 선불교, 페이야르 드 샤르댕, 동학(東學) 등을 섭렵하여 생명사상의 학문적 기초를 닦았다. 하루는 “대낮에 갑자기 네 벽이 좁혀 들어오고 천장이 자꾸 내려오며 가슴이 팍 막힌 듯 답답해서 짹 소리 지르고 싶은 심한 충동”을 느끼는 ‘벽면증’(壁面症)에 사로잡혔다 한다. 형무소의 쇠창살과 시멘트 받침 사이에 풀씨가 날아와 자라는데, “풀마다 찢끄맴고 노오란 꽃망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큰 깨달음을 얻고 두세 시간을 우는데 허공에서 ‘생명! 생명! 생명!’ 하는 메아리가 들려왔다고 한다.<sup>22)</sup> 이후 그는 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하여 투쟁을 선포하는 시와 산문 대신에, 자신이 깨달은 생명사상을 전파하는 데 그의 남은 반생을 다 바쳤다. 그야 말로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생명’이란 변화하는 우주 만물의 속에서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신비적이며 영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온 우주의 “전체를 지배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확장되고 있는 어떤 것, 어떤 실재”이다. 동양사상의 ‘기’(氣), 동학의 ‘한울님’과 가장 유사한 개념일 것이고, 하이데거의 ‘존재 그 자체’(Being Itself)나 혹은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과정으로서의 하나님’과 가깝다.<sup>23)</sup> 김지하는 인간 뿐 아닌 모든 짐승과 벌레, 식물, 공기, 흙 등의 모든 무기물까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생명의 외연을 확장시킨다.<sup>24)</sup> 자연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모든 반복적인 현상에 숨겨져 있는 것은 “생성화육의 조화의 힘”이고, 이는 “우주가 생명 에너지, 생성의 큰 바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5)</sup>

22)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pp. 430-432.

23) 동학의 신관과 화이트헤드 신관의 비교에 대하여,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세계철학 창조를 위한 최수운, 켄 월버, 존 캡의 대화』 (서울: 지식산업사, 2000)을 참고하십시오.

24) 김지하,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 『밥: 김지하 이야기 모음』 (왜관: 분도출판사, 1984), p. 142, 150.

그렇다면 김지하 전기(前期)의 ‘민중’과 후기(後期)의 ‘생명’의 관계는 어떠한가? ‘민중’은 하나의 인간 집단으로서 외연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은 그 인간 안에 있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 둘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 것일까? 김지하가 출옥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1984) 쓴 글의 제목인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에서 그 해답이 밝혀진다.<sup>26)</sup> 김지하는 그의 생각을 ‘생명’ 중심으로 풀어 나가지만 ‘민중’을 버리지 않는다. 생명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체현한 것이 바로 사람이요, 사람 중에서도 민중이라고 한다. 생명 현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육체적인 노동인데, 민중이야말로 이 노동을 통하여 생명의 움직임을 가장 잘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反)생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그 반생명적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억압받는 민중이다. 이런 점에서 민중을 “생명의 담지자”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생명현상에 대한 자각이 ‘민중’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에 이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자, 정치가, 군인 등의 지배계급에도, 중산층에도, 지식인에도, 청년학생에게도, 학자들, 예술가, 여성 등 모든 인간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자각할 가능성을 가진다.<sup>27)</sup>

한 마디로 말하여 후기 김지하의 ‘생명’이 전기 ‘민중’을 포괄하는 것이다. 김지하의 사고체계에서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외연적 집단으로부터 생명이라는 질적 현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그 생명의 운동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민중에게서라 말함으로써, 생명이 민중을 포괄한다. 김지하에 의하면 근대 한국의 험난한 민족사를 통하여 생명의 드러남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민중운동을 통하여서였던 것일 뿐, 역사적 상황이 바뀌면서 반드시 민중만이 생명운동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역사적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민중상(相)에 사로잡혀 폭력적인 민중운동을 추구하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학생운동을, 김지하는 준열히 꾸짖는다. 1991년 5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죽음의 굶판 당장 걷어 치워라”라는 글에서 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학생운동을 비판하였다. 종전의 민중운동은 어떤 대척적 세력을 상정해 놓고 이에 대한 ‘패권(霸權)전환’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 조급증’에 걸려 있는 것이라 한다.<sup>28)</sup> 민중운동이 생명운동의 일환으로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물질화” 된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쉼 새 없이 움직이고 자기를 변환하는 생명운동을 민중운동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sup>29)</sup>

김지하는 민중운동을 대신할 새로운 운동을 주창한다. 종교운동, 문화운동, 예술운동이 민중운동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이라는 80년대 초반의 글 이후로 김지하에서 ‘민중’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한살림 공동체,’ 동학(東學)과 증산도(甌山道)의 재발견, ‘울려운동’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지하에게서의 이와 같은 중심의 이동은 한국 신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물론 한국의 모든 민중신학자가 김지하의 글을 읽고 생명신학으로 전환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민중운동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야 함을 설득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또한 민중신학에서 생명신학으로 방향을 수정한 사람들이 모두 김지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

25) 김지하, 『생명학 1』(서울: 화남, 2003), p. 83.

26) 김지하,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 『밥: 김지하 이야기 모음』 (왜관: 분도출판사, 1984).

27) 김지하,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 pp. 157-160.

28) 김지하, 『밥: 김지하 이야기 모음』, p. 29, 154.

29) 김지하, 『밥: 김지하 이야기 모음』, p. 29 이하.

다. 이미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심의 생명신학 논의가 무르익고 있었고,<sup>30)</sup> 전통적 동양 사상인 도교나 불교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sup>31)</sup> 단지 전체적인 신학의 틀이 김지하의 문제의식의 이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말이다.

제2세대 민중신학자로서 알려진 박재순은 『한국생명신학의 모색』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기존의 민중신학과 새로운 생명신학을 접합시키려 노력한다. 동학과 증산도 등의 한국민중종교의 전통에서 말하는 생명사상과 참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시키려고 노력하다. 박재순에 의하면, 생명사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1990년 3월 세계기독교협의회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회의 때이지만, 생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70년대 함석헌의 ‘씨울사상’과 80년대 김지하의 운동이었다고 한다. 특히 김지하에 대하여는, “동학과 증산교의 생명사상을 신과학운동과 결합시키면서 시적 상상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생명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왔다”고 평한다.<sup>32)</sup>

민중신학자 김명수는 『초대기독교의 민중생명신학 담론』이라는 책에서 이제는 단순한 민중신학이 아니라, ‘민중생명신학’을 논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김지하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외연을 피조 세계에까지 넓혀 나가야 한다고 한다. “... 민중의 범주는 인간에게 국한시킬 수 없다. 인간에 의해서 소외되고 생명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는 땅과 하늘과 우주 만물, 곧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피조 생명 일체가 민중의 범주에 들어간다.”<sup>33)</sup> 생명사상에 대한 논의는 복음주의 신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한이 『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sup>34)</sup>를 저술하는 등 신진 신학자들의 논의가 활발하다. 생명의료윤리 등의 분야를 통하여 복음주의권(圈)에서도 생명사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왔다. 진보적인 신학과 복음주의신학이 만나는 접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다.

## 2. 김지하 생명사상에서의 인간과 자연

김지하의 주장과 같이, 모든 자연물이, 심지어 무기물까지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인간의 특수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로운 자연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존재인가?

생명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다. 오랜 기간의 철학적 고뇌 끝에 생태주의를 주장하는 박이문의 경우, 생명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는, “인간 중심에서 자연중심적 세계관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35)</sup>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안에서의 인간의 특수한 위치를 주장하여, 자연의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말하여서는 결국은 ‘인간중심주의’가 되고 만다고 말한다. 선순화도 기독교 전통에서의 인간관과 생명신학에서의 인간관을 비교한다.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2장에 근거하여 인간이 “창조 세계

30) 조용훈, “기독교 생명신학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제119호 (2002년 12월), pp. 204-206.

31) 윤영해, “불교의 생명이해,” 『신학사상』 제92호 (1996년 3월); 이상성, “생태신학: 동양사상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신학사상』 제105호 (1999년 6월).

32) 박재순, 『한국생명신학의 모색』(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p. 3-4.

33) 김명수, 『초대 기독교의 민중생명신학 담론』(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p. 14.

34) 김영한, 『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서울: 쿤란출판사, 2000).

35) 박이문, 『자연, 인간, 언어』(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8), p. 83.

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 세계에 대하여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생명신학에서는 “창조 세계로부터의 인간의 독립성보다는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 의존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간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36)</sup>

김지하도 대체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는 듯하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 인간의 자연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부정하면서, 인간을 자연의(물론 이 때의 자연은 생명의 역동성으로서의 자연이다) 일부로 본다. 자의식을 가진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의식(自意識)을 가지게 된 것이 자연적인 ‘진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김지하는 데이야르 드 샤르댕의 우주 진화의 대전제인 복잡화의 법칙을 받아들일면서, “매우 높은 복잡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생명이고 극단의 복잡성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의식”<sup>37)</sup>이라고 한다.<sup>38)</sup> 즉 자의식을 가진 인간에게 자연물로부터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개발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하에 의하면, 인류에 재난이 오게 된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분별지’(分別智) 때문이다. 주관과 객관의 분리, 하늘과 땅의 분리, 남자와 여자의 분리,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모든 악의 원인이라 한다. 이 분리는 곧바로 대상에 대한 지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환경의 오염과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분별하여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혁명의 주체가 자신을 ‘노동자’로 분별해 놓고, 자신 외의 다른 것을 다 대상화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서양의 사회경제사에서, 민중이 자신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라 한다. 민중이란 것을 하나의 집단으로서 실체화하여, 테두리 속에 가두려 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sup>39)</sup> 그렇다면 김지하에게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연물의 일부로서 주어진 생명의 순환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전기(前期) 김지하가 주장하였듯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이를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주체”이며, 혹은 민중신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자기 초월”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가?

김지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특수한 위치를 주장한다. 인간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수동적으로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쓴다.

우주 자연과의 완전한 교감과 일치, 일체를 이루어 자기를 실현하며, 그 과정이 또한 모든 자연 생명 내부에 살아 있는, 그러나 아직 꽃피우지 못한 영성적인 자유의 만개를, 앞으로 인간이 창조해야 할 생명문화와 세련된 도덕적 과학으로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이른바 중생 대해탈을 가능하게 하여 참다운 후천개벽을 성취시켜야 할 크고 깊고 광활하고 당당한 전 우주적인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신령

36) 선순화, “생명 파괴 현상에 직면한 생명신학의 방향 모색”, 『신학사상』 92집(1996년 3월), p. 56.

37) 김지하, 『생명학 1』, p. 163.

38) ‘온생명’을 주장하는 장희익을 중심으로 한 과학계에서의 논의도 인간 의식을 진화의 산물로 본다. “... 온생명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내가 바로 온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의식해낼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이 마지막 지혜, 즉 인간이 이루어낸 집합적 지혜를 통해서라는 것이다... 인간에 이르러 비로소 온생명은 자기를 의식하는 하나의 의식주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장희익, 『한겨레』 1995년 5월 18일, 박재순, 『한국생명신학의 모색』 p. 56에서 재인용) 또한 김용준, “사람·종교·과학,” 정진홍 등, 『종교와 과학』(서울: 아카넷, 2000), pp. 239-268을 참고하라.

39) 김지하,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 p. 138.

하다는 것입니다.<sup>40)</sup>

진정한 인간의 해야 할 일은 우주 생명의 조화와 흐름에 교감을 가지고 이 생명의 흐름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 한다. 이는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하지 않으면서도 안 하는 것이 없다)와 유사하다. 또한 동학(東學) 13자(字) 주문(呪文) 가운데 ‘조화정’(造化定)과 일치한다. 세상 만물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활동하는데, 이러한 만물의 ‘조화’에 자신의 뜻을 고정시키는 것[合其德]을 통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는 동학의 가르침과 유사하다.<sup>41)</sup>

인간의 인식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자신의 실상을 생동하는 변화 속에서 인식하되 그 자각적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역동적인 실천 방향으로 매진하되 한 방향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sup>42)</sup> 오히려 인간은 “우주생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신령한 자각적 우주 생명”인 것이다.

인간 의식작용의 표상인 언어(言語)에 대하여도, 언어 자체의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고정시키는 것으로서의 명제적(propositional) 언어관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러나 언어가 없을 수는 없고,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차적으로는 어떤 규정을 하면 틀려 버린다고 하지만, 방편상 언어를 통해서 밖에는, 상대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밖에는 실체에 접근하고 실체의 본성에 알맞게 사는 방법을 찾아내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지만, 이 조건 속에서나마 실상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sup>43)</sup>고 말한다.

인간의 인식작용과 언어사용에 대하여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학에 대하여도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는 기존의 과학을 ‘죽임의 과학’이라 하여 반대한다. 도덕이나 영성과 분리된 객관주의적, 가치중립적 과학은 이 세계를 참되게 인식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니라 한다. 바람직한 과학은 ‘살림의 과학’이다. “살아 생성하는 삶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살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살아 있는 그대로 그 발견을 적용하여 산 것을 그 생명의 ‘결’에 따라 더욱 살리는 도덕으로서의 과학 본연을 회복하는 것”<sup>44)</sup>이 새로운 과학운동이라고 한다.

김지하의 인간론을 요약하자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또한 복잡화 진화의 정점에 있는 존재로서, 자의식을 가지면서도 자신을 자연의 조화에 맡겨야 한다. 인식작용을 하지만 분별지(分別智)를 가지지 않고, 언어를 가지지만 그 한계를 알아 사용해야 하고, 과학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생명의 단면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학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우주 생명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작은 생명을 만개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를 통하여 온 중생(衆生)이 대해탈(大解脫)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40) 김지하, 『생명학 1』, p. 152.

41) 김지하, 『동학이야기』(서울: 숲, 1994), pp. 42-49.

42) 김지하,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 p. 142.

43) 김지하,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 p. 143.

44) 김지하, 『생명학 1』, p. 89.

#### IV. 결론: 김지하 생명운동의 문제점 혹은 기독교 생명신학의 착안점

김지하 생명 운동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sup>45)</sup> 이 글에서는 김지하의 사상이 한국의 민중신학에, 그리고 생명신학의 형성에 어떠한 자극과 도전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민중에서 생명으로 그 사상의 축을 옮길 때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기독교 생명신학이 김지하 등의 생명사상을 수용하여 신학을 하려할 때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기독교 생명신학은 김지하 생명사상의 영향과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동시에 그의 생명사상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1. ‘민중’과 ‘생명’

위에서 김지하의 ‘민중’ 개념과 ‘생명’ 개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생명이 민중을 포괄하여, 민중 속에 가장 잘 발현된 것이 생명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민중과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1980년대 중반에만 있던 일이지, 그 이후에는 민중과 생명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즉 그가 감옥에서 ‘생명’에 대하여 발견하고, 이를 개념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전에 그가 붙들고 있던 중요 개념인 ‘민중’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 두고 싶었던 것이다. 김지하는 이런 식으로 민중과 생명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는, ‘민중’은 버리고 ‘생명’으로 나아간다. 어쨌든 민중은 계급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고, 생명은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는 민중 개념을 버릴 수밖에 없다. 생명을 가진 것은 민중과 같이 억눌린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자도 중산층도 지식인도 학생도 모두 생명의 약동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올려운동’과 같은 문화운동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감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기물과 기계에까지 생명을 부여하는데, 민중이라는 계급은 이미 의미를 상실하였다.

김지하 생명론의 문제점은 생명이 만물 속에 미분화된 상태로 들어 있다는 점이다. 가장 고등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 안의 생명과 벌레와 같은 미물에 있는 생명이 다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무차별적이고 미분화된 생명 개념은 생명 담지자들 사이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으로 발전하지 못 한다”<sup>46)</sup>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과 그 위협 때문에 피해를 받는 ‘중생’(衆生)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 해 보자. 김지하는 최해월의 ‘이천식천’(以天食天,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만물 속에 생명(한울님)이 있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 어떻게 생명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생명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역동적인 생명의 순환이므로,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47)</sup>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45) 홍윤기, “우리의 허약한 현대, 그리고 야만으로의 퇴행: 김지하, 시적 강인함과 철학적 혼돈 위에 오는 것,” 『당대비평』 제9호 (1999년 9월); 장석만, “우주적 상상력의 ‘시중적 성찰’을 위하여: 김지하 사상의 ‘틈’ 벌리기,” 『당대비평』 제9호 (1999년 9월) 등을 보라.

46) 홍윤기, 위의 글, p. 263.

47) 김지하, 『동학 이야기』, p. 250.

생명이 생명을 먹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독재자가 민중을 억압하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것도, 생명을 죽여서 생명을 살리는 행위의 하나라고 하면 어떻게 이를 비판할 수 있는가?<sup>48)</sup>

필자의 생각으로는 바로 여기에 기독교적 생명사상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전통적 기독교 사상에서는 만물에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생명에 적절한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Creation Ordinance)를 고백한다. 생명의 각각의 종(種)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인 규범으로서의 성경이 있다는 말이다. 인간과 자연,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권위자와 민중, 이 관계들에 억압과 폭력이 없는 생명의 순환과 발전을 전제하면서도, 이 생명들 사이에 목적과 질서가 주어져야 한다. 김지하의 생명 사상으로부터 도전과 영향을 받으면서도, 무차별적이고 미분화된 생명이 아닌 질서 있는 세계를 상정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반(反)생명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의미한 투쟁이 가능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적 생명신학이 김지하의 생명사상을 넘어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 2. 인간과 자연

김지하 사상의 축이 ‘민중’에서 ‘생명’으로 전회하면서, 인간의 위치에 변화가 생겼다. 민중이 역사의 중심이기 위하여는, 자기를 초월하는 위대한 행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동료 김병곤이 “영광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가리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이겼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들, 이 집단의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sup>49)</sup> 바로 이러한 ‘민중의 자기 초월’이 민중신학의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김지하의 생명사상은 인간의 지위와 의무를 변화시켰다. 자기를 초월하는 위대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것을 깨닫고 자연의 ‘造化’(造化)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다. 인식과 언어활동과 과학을 하면서도 자연의造化에 어긋나지 않게, 자연의 생명이 발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하라는 것이다. 주관과 객관, 남자와 여자, 인간과 자연,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비적이고 영성적으로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지하의 이런 인간관은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두 가지의 예를 들려 한다. 우선 환경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sup>50)</sup> 환경을 보호하자는 데, 이론적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살기 좋도록, 혹은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는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환경이론일 것이고 김지하는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 다른 하나는 ‘생명중심주의’ 혹은 ‘심

48) 김지하도 생명사상의 추상성이 갖는 무의미와 허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우리 민족을 ‘성배 민족’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상고사에서 문화의 원류를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추구는 결국, “철학적 혼돈”이며, “정신적 차원에서 파시즘 담론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홍윤기, 위의 글, p. 266 이하)

49) 김지하, “고행-1974,” 『남녘땅 뱃노래: 김지하 이야기모음』(서울: 두레, 1985), p. 37; 또한 『흰 그들의 길 2』, p. 364-66.

50)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박이문, 『자연, 인간, 언어』(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8)에 있는 논문, “자연과 인간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pp. 78-84)에서 빌려온 논의임을 밝혀둔다.

층생태학'(deep ecology)라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일 뿐 자연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의 가치와 벌레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현실적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서라도, '가치'를 따지는 논의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론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치'는 늘 가치를 평가하는 자의 잣대가 있을 것이요, 그 잣대를 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만일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런 가치 평가 없이 잘 살기 위한 본능에 의하여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산 것을 그 생명의 ‘결’에 따라 더욱 살리는” 과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명은 (김지하의 정의에 따르면)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살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살린다는 말인가? 생명의 ‘결’을 어떻게 파악한다는 말인가? 이미 인간의 가치평가가 개입된 개념이 아닌가?

두 번째의 예(例)는 폭력혁명과 종교·문화적 변혁의 관계이다. 김지하는 민중 개념을 버리고 생명사상을 택할 때, 폭력혁명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자세로 이미 돌아선 것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폭력혁명과 문화적 변혁의 관계에 대하여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동학(東學) 연구이다. 김지하는 감옥에서 동학과 증산도의 가르침에 심취한 후, 동학과 증산도가 발흥하였던 남쪽 지역을 여행하며 사교의 폭을 넓힌다.<sup>51)</sup> 그 여행을 통하여 얻은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한 것이었다. 즉 남접의 김개남, 전봉준은 폭력혁명 즉 동세개벽(動世開闢)을 주장하고, 북접의 최해월은 때를 기다리며 정세개벽(靖世開闢)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견해가 대립되었었다고 하는 견해를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상상력을 동원한 답사에 의하여 김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세와 정세(靖世)는 양측면이기는 하나 대칭되는 측면이 아니라 상호 순환하는 극(極)입니다. 그 전체를 아우르는 태극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동세 쪽에 기운다 하더라도 정세적인 것의 계기가 있어야 하며 정세로 기운다 하더라도 동세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는 태극, 커다란 통일 속에서의 음과 양의 파악, 동과 정의 통일적·유기적 파악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sup>52)</sup>

동세 혁명을 꿈꾼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평화가 있어야 하고, 종교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서 폭력혁명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말은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김지하는 동학에서 “신과 혁명의 통일”의 완벽한 전형(典型)을 본 것이다. 그러나 혁명을 일으켜야 할 동세개벽의 시작점이 언제이며, 때를 기다리며 정세(靖世)하여야 할 때가 언제인가? 과연 후천개벽(後天開闢)이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벽의 때를 앞당겨야 하는가? 후천개벽이라는 것이 오만 년에 한 번 오는 세계사 ‘운수’(運數)의 회귀이기 때문에, 그 ‘造化’(造化)에 ‘정’(定)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비로소 다가오는 것인가? 만일 전자라고 하면 김지하 자신의 ‘운동’을 포함한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요, 후자라고 하면 그가 비난하는 폭력을 동반한 학생운동과 차이가 없어진다. “상호 순환하는 극(極),” “전체를 아우르는 태극” 속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점에서는 동세와 정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하기 마련인데, 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인가?

51) 김지하의 여행에는 소설가 고 이문구 등이 동행하였다. 그 여행기를 기록한 책이, 김지하, 『사상기행 1, 2』 (서울: 실천문화사, 1999)이다.

52) 김지하, 『동학이야기』, p. 129.

기독교적 인간론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을 확대하고 무차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인지능력과 윤리적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을 가지고,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을 대상화시킨다.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이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다. 단지 인간이 이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다. 사물을 대상화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놓는 것이 죄의 근원이다.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것이 타락의 근원이다.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과학을 절대화하는 것이 비극의 원인이다.

기독교 신학이 김지하로부터 사상적, 실천적 도전과 인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분이었다. 민중신학이 그러하였고 생명신학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학이 김지하의 모든 것, 특히 그의 종교적 배경까지 본받을 필요는 없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지하의 생명 개념에, 그리고 그의 인간론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기독교적 생명신학 형성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생명신학자들이 전통적 기독교를 너무 쉽게 폄하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김지하가 동학과 증산도를 받아들인 것까지도 함께 수용한다. 예를 들어 박재순은 동학의 인내천과 ‘향아설위’(向我設位)사상에서 또한 증산도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을 높이 평가한다.<sup>53)</sup> 기독교 신학이 너무도 쉽게 전통적 기독교의 주장을 포기하고 김지하의 동학과 증산도마저 수용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김지하의 주장을 포괄하여 새로운 성경적 대안을 내어놓아야 할 때이다.

---

53) 박재순, 『한국생명신학의 모색』(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p. 23-28.

## 참고문헌

- 김명수, 『초대 기독교의 민중생명신학 담론』(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세계철학 창조를 위한 최수운, 켄 윌버, 존 캅의 대화』(서울: 지식산업사, 2000).
- 김용복, “민중의 사회전기와 신학,” NCC신학연구위원회 편, 『한국민중의 사회전기: 민족의 현실과 기독교운동』(서울: 한길사, 1987).
- \_\_\_\_\_, “21세기와 민중신학”, 『신학사상』 109집, (2000년 여름).
- 김영한, 『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서울: 쿰란출판사, 2000).
- 김용준, “사람 · 종교 · 과학,” 정진홍 등, 『종교와 과학』(서울: 아카넷, 2000).
- 김지하, 『밤: 김지하 이야기 모음』(왜관: 분도출판사, 1984).
- \_\_\_\_\_, “양심선언”, 『남녘땅 뱃노래』(서울: 두레, 1985).
- \_\_\_\_\_, “고행-1974,” 『남녘땅 뱃노래: 김지하 이야기모음』(서울: 두레, 1985).
- \_\_\_\_\_, 『동학이야기』(서울: 숲, 1994).
- \_\_\_\_\_, 『사상기행 1, 2』(서울: 실천문화사, 1999).
- \_\_\_\_\_, 『생명학 1』(서울: 화남, 2003).
- \_\_\_\_\_, 『흰 그들의 길 2』(서울: 학교재, 2003).
- \_\_\_\_\_, “풍자냐 자살이냐”, 『이것 그리고 저것』(서울: 동광출판사, 1991).
- 문동환, “21세기와 민중신학”, 『신학사상』 109집, (2000년 여름).
- 박이문, 『자연, 인간, 언어』(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8).
- 박재순, 『한국생명신학의 모색』(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서울: 한길사, 1983).
- 선순화, “생명 파괴 현상에 직면한 생명신학의 방향 모색”, 『신학사상』 92집(1996년 3월).
- 성민엽, “김지하의 문학과 사상”, 『작가세계』, 제2호.
- 안병무, “예수 사건의 전승모체”, 주재용, 서광선 편, 『역사와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윤영해, “불교의 생명이해”, 『신학사상』 제92호(1996년 3월).
- 이상성, “생태신학: 동양사상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신학사상』 제105호(1999년 6월).
- 장동민, “민중신학에서 생명신학으로: ‘민중의 사회전기’ 개념을 통해 본 민중신학의 변화가능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0호(2004년 3월).
- 장석만, “우주적 상상력의 ‘시중적 성찰’을 위하여: 김지하 사상의 ‘틈’ 벌리기”, 『당대비평』 제9호(1999년 9월).
- 조용훈, “기독교 생명신학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제119호(2002년 12월).
- 최영실, “안병무의 민중신학적 성서해석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신학사상』 76집(1997년 봄).
- 홍윤기, “우리의 허약한 현대, 그리고 야만으로의 퇴행: 김지하, 시적 강인함과 철학적 혼돈 뒤에 오는 것”, 『당대비평』 제9호(1999년 9월).
- 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 2004년 11월 15일.